

Life Care Part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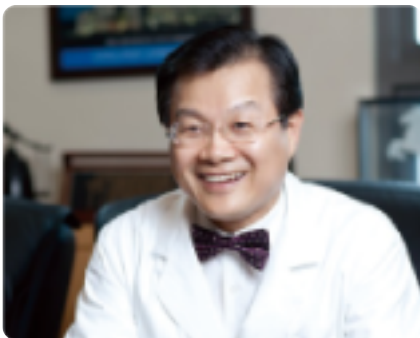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튼튼한 건강 주치의가 되어
함께 동행합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 Letter

동국대학교 신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으로 이진호 교수 임명

동국대학교의료원은 지난 12일 제 18대 동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제8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장으로 이진호 교수가 임명됐다. 이진호 의료원장(소화기내과)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임용된 후 제 3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장(2007. 09~2011. 12.), 제 15대 동국대학교의료원장(2013. 03.~2015. 05.)을 역임했다. 또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내과과장, 소화기병센터장을 역임한 바 있다.



직원들의 행복한 소통 공간을 위한 ‘행복 신문고 전산시스템’ 운영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직원들의 고충과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소통의 통로인 ‘행복 신문고 전산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다. 기존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운영되었던 직원 제안제도 및 행복 신문고, 고충처리 등의 시스템은 이용이 복잡하고 불편하여 직원들의 참여가 저조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기획예산팀에서는 직원들의 고충과 제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업무개선 등 창의적인 제안 및 개발 반영을 위하여 기존 플랫폼을 하나로 통합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직원들의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교직원들은 누구나 원내 EMR 우측 상단의 ‘행복 신문고’에 접속하여 ‘고충’과 ‘제안’란을 구분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한편, 직원들의 제안제도에 대한 포상은 분기별 1회 지급될 예정이며, 마일리지 제도는 개인별 신청(10,000점 단위) 후 문화, 도서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외과계중환자실 간호사, 환자와의 공감을 위한 환자체험활동 실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외과계중환자실 간호사들은 환자에 대한 이해와 공감으로 최상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환자체험활동을 실시했다. ‘마음으로 응답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내부적인 환자체험 교육을 통해 환자 입장에서 의식 전환 및 현 상태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15명의 간호사들이 체험활동에 나섰다. 환자의 마음까지 치료하겠다는 ‘감성 간호’를 위해 중환자실에서의 불편함과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체험을 통해 직접 느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체험에 참가한 간호사는 “처음 간호사 시절 초심을 기억하며 참여하게 됐다. 사소한 환자복 갈아입히기부터 내가 무심코 행했던 행동들이 환자에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었는지 느끼게 됐다.”며, “약 1시간 반 동안 중환자가 되어본 경험은 내 간호사 인생에 큰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교직원 불자회 연우회, 수덕사 승가 의료봉사 다녀와

교직원 불자회 연우회는 지난 6월 25일 충남 예산군에 위치한 수덕사에 의료봉사 활동을 다녀왔다. 이날 의료봉사에는 지도법사 덕유 스님을 비롯하여 연우회장 재환 의학과 권범선 교수와 한방신경정신과 구병수 교수, 신경과 김광기 교수, 응급의학과 이승철 교수 등 연우회 회원 30여 명의 교직원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봉사에서는 견성암과 정혜사의 62명의 스님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양·한방진료 및 침 치료와 재활치료, 영양수액 투여 등의 진료가 이루어졌다. 앞으로도 교직원 불자회 연우회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의료봉사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무더위엔 수박이 최고!” 전 직원과 함께 나눠요!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12일 ‘초복’을 맞이하여 ‘무더운 여름 수박으로 더위를 이기자!’라는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전 직원에게 수박 나눔 행사를 펼쳤다. 무더위에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수박을 전달하기 위해 주요 보직자들은 함께 모여 직접 부서를 방문했다. 이날 약제팀을 찾아 수박을 전달한 김재선 행정처장은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다.”며, “여름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길 바라며, 잠시나마 시원한 수박과 함께 힘내자.”라고 말했다.

